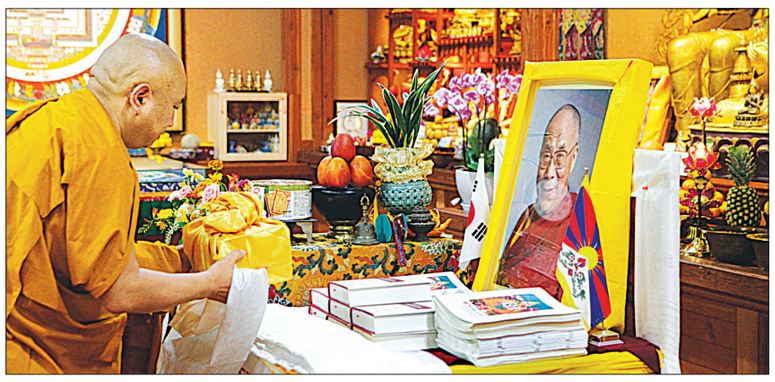
광성사, 달라이라마 생일축하법회 개최

수행지침서 〈람림〉 증보판 봉정

달라이라마 '선한 마음' 강조 법문
〈람림〉 절판 후 인기에 증보 발간
수행 차제에 대한 내용 대폭 수정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광성사는 7월 6일 경내 법당에서 '달라이라마 생일 기념법회 및 〈티벳 스승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람림〉 증보판 봉정식'을 개최했다.

한국티벳불교사원 부산 광성사가 달라이라마 존자의 86세 생일 기념 법회를 진행하며 〈람림〉 개정 증보판을 봉정했다.

부산 광성사(주지 소남)는 7월 6일 경내 법당에서 '달라이라마 생일 기념법회 및 〈티벳 스승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람림〉 증보판 봉정식'을 개최했다.

기념법회는 삼귀의 및 카닥 공양 올리기와 봉정식 및 달라이라마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장수기도' 순으로 진행됐다.

장수 기도에서 스님들과 불자들은 '구루 요가 기도문'을 차례로 읽으며 달라이라마의 메시지를 되새겼다. 구루요가 기도문은 주지 소남 스님이 달라이라마 존자의 생일을 기념하며 주지 소남 스님이 한역했다.

소남 스님은 "달라이라마 존자님은 86세 생일을 맞아 선한 마음을 내어 줄 것을 당부했다"며 "선한 마음 말고는 달라이라마 존자님은 원하는 것이 없다고 하셨다. 늘 선한 마음을 내어 주시기를 바라셨다"고 전했다.

광성사가 부처님께 봉정한 책은 '티벳 스승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람림' 개정 증보판이다. 개정 증보판은 총 5000부 발행됐다. 광성사 뿐 아니라 한국 사찰에서 수행하는 모든 불자들이 읽고 수행하기를 발원한 주지 소남 스님의 원력이 담겼다.

소남 스님은 "강의를 하며 설명했던 내용들을 추가 보완해 새롭게 정리했다"며 "광성사 뿐 아니라 한국의 사찰들과 불자들이 보고 성장과 수행의 길을 찾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책은 2004년 〈티벳 스승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이란 제목으로 처음 발간됐다. 이 후 책이 절판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책을 찾는 불자들이 많아 재출간을 결심, 첨삭 보완해 새롭게 출간됐다.

〈티벳 스승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람림〉(맑은소리맑은나라)은 '로죵(마음 바꾸기)' 수행과 '선정(사마타)'을 비롯한 상사도의 수행차제에 대한 내용이 대폭 수정 보완됐다.

특히 이무아(二無我)에 관한 불교 사대학파별 견해와 밀교의 수행체계에 관한 내용을 추가해 이전 책에서 간략하게 다루었던 '지혜(위빠사나)'와 금강승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추가했다. 또 중관의 견해에 통달한 빨덴 닥빠 스님이 최근에 저술한 공성과 자비에 관한 핵심 요약 또한 번역해 부록에 실었다.

〈람림(Lam-rim)〉은 쫑카빠 스님(1357~1419)이 1402년 티베트 라싸 북쪽 레팅사에서 쓴 〈보리도차제〉의 다른 이름이다. 티벳어 '장춥 람림'을 줄인 말이며, '장춥'은 깨달음을 뜻하고 '람'은 길 '림'은 순서라는 의미이다. 깨달음으로 이끄는 단계적 수행을 안내하는 티벳 불교 대표 수행 지침서이다. 보리심과 수행하려는 마음을 일으키는 첫 단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 반드시 실천 수행해야 할 핵심 내용을 갖추고 있다.

주지 소남 스님은 "달라이라마 존자의 생신에 맞춰 책을 봉정했다. 수행을 향한 염원이 담겨 더 뜻 깊은 생신 선물이 되었을 것이다"며 "매주 수요일 정기적으로 공부시간을 열려고 한다. 내년 다음 생신 때 공부의 결과로 다시 축하하는 회향을 맞자"고 당부했다.

종립 금정중, 다목적 인성교육관 설립

'반야원 및 다목적 인성교육관 조성 기념법회' 봉행

교화활동 및 인성교육 장소
비종교 학생에도 장소 제공
법당 외 상담 · 인성실 위치

금정총림 범어사 종립학교인 금정중학교에 학생들의 인성 교육과 상담을 위한 '다목적 인성교육관'이 새롭게 조성됐다. 금정중학교(교장 권장석)는 7월 7일 교내 법당인 금정법당(반야원)에서 '반야원 및 다목적 인성교육관 조성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과 권장석 교장, 이석언 교법사, 학부모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권장석 교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준 모든 내외 귀빈에게 감사 인사를 올린다"며 "앞으로 반야원과 다목적 인성교육관은 본교 건학이념의 뜻에 따라 교화 활동과 인성교육의 새 터전으로 그 역할을 다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은 법문을 통해 "시대에 맞는 불자 인재 양성 교육 기관으로 성장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사장 취임 후 낙후된 학교 법당을 보며 아쉬움이 많았다"며 "역사에 어울리는 공간이 되기를 바랐고 오늘 그 결실을 보니 무엇보다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의 인성과 성장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전법의 장으로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석언 교법사는 "요즘은 이웃종교를 가진 학생들이 많다. 법당을 꺼리는 경우도 종종 있어 수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목적 교육실과 상담실을 갖춰 종교가 달라도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것이 큰 수확이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이번 불사를 위해 이사장 스님과 이사 스님들의 후원이 무엇보다 컸다.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금정중학교 법당인 반야원은 1996년 별관에 석가모니불을 봉안하고 15평 규모로 조성됐다. 1997년 6월 학부모 신행단체 반야불자회가 창립돼 활기를 띠었고 종교 수업과 예불, 행사, 교학 상담 등 학생들을 위한 교내 전법도량으로 역할을 담당했다.



금정중학교는 7월 7일 교내 법당인 금정법당(반야원)에서 '반야원 및 다목적 인성교육관 조성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하지만 법당 반야원은 시설이 낙후 돼 새로운 환경 개선이 꾸준히 요구되어 왔다. 이번 불사를 위해 이사장 경선 스님과 이사 스님들이 5000만원을 후원했다.

금정중학교는 법당 뿐 아니라 교내에 부처님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신심 고취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법당 반야원에 모신 석가모니불(석조여래좌상)은 200년이 넘는 역사 가치를 인정받아 2010년 부산시 문화재자료 제52호로 등록 되었으며 2013년에는 후불탱화 및 호법신장탱화를 조성했다. 특히 2019년에는 교내 야외 자비동산에 석가여래불을 새롭게 봉안 한바 있다.

하성미 기자

민추본 부산, 한반도 평화 특강 눈길

7월 2일 홍법사 교육관서 개최



민추본 부산경남은 7월 2일 홍법사 교육관에서 '한반도 평화의 길찾기 ·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남북관계 전망'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경남본부(이하 민추본 부산경남)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특강을 개최했다. 민추본 부산경남(본부장 정관)은 7월 2일 홍법사 교육관에서 '한반도 평화의 길찾기 ·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남북관계 전망'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특강은 김진환 교수가 담당했다. 김 교수는 현재 국립통일교육원 교수로 활동하며 민추본 정책기획위원 및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 연구교수 및 이화여대 통일학 연구원 개원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대표 저서는 〈동북아시아 열국지〉가 있다.

김 교수는 무엇보다 주변국과 강대국의 영향력에 흔들리지 않는 자주성을 갖추려면 하나되는 구심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한반도는 지리학적으로 대륙입장에서는 해양세력이 대륙으로 진출할 수 없게끔 막아주는 '칼'이나 '방패'의 역할을 했다. 해양의 입장에서는 대륙 진출의 '다리'로 이용했다.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 발생하는 영향력을 원심력이라 할 수 있다"고 먼저 설명했다. 이어 "원심력은 우리가 제어하기 힘들다. 하지만 우리나라 단결된 힘인 '구심력'이 강하면 원심력을 뛰어넘게 된다. 남과 북이 구심력을 키우고 힘을 합치면 강대국들에 의한 원심력이 약해지는 그런 시기가 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본부장 정관 스님은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좋은 특강을 해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들의 아픔을 후대에게 물려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스스로 당당하게 조금만 더 한발 나갔으면 좋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강의는 코로나 19 확산 예방을 위해 실시간 유튜브 방송으로 진행됐으며, 행사장에는 정관 스님(민추본 부산경남 본부장), 석산 스님(조계종부산연합회 사무총장) 등 30여 명이 동참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경봉 스님 39주기 다례재서 인재불사

경봉장학회 총 3900만원 전달



한국 근대불교를 대표하는 선사, 경봉 스님의 열반을 추모하는 다례재가 봉행됐다.〈사진〉 아울러 경봉 스님의 인재불사 원력을 잇는 장학금 전달식도 진행됐다.

경봉문도회(대표 원명)는 7월 6일 통도사 극락암에서 '경봉 대선사 열반 39주기 추모다례재 및 경봉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추모다례재는 문장 원명 스님, 원산 스님과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성파 스님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추모다례재는 △개식 △대중삼배 △추모입정 △종사영반 △헌다 △경봉장학회 장학금 전달 △문도 대표 인사말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경봉장학회 장학금은 동국대 박사과정 1명, 석사과정 7명, 학사과정 7명, 중앙승가대 석사과정 3명, 학사과정 9명 총 27명에게 각 100만 원씩 2700만 원이 전달됐다. 아울러 통도사 승가대학 8명에게 50만 원 400만 원과 선원에 수행지원금과 영축율학승가대학원 연구비로 800만 원을 지급해 총 3900만 원이 전달됐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팔만대장경을 260자로 압축한 경전!
반야심경 제대로 공부하기



불교의 공空사상을 담은 방대한 600권 『반야경』의 정수를
간략하게 260자로 압축한 『반야심경』의 핵심 사상을
다각적이고 입체적으로 조명하였다!

이광준 지음/184쪽/값 1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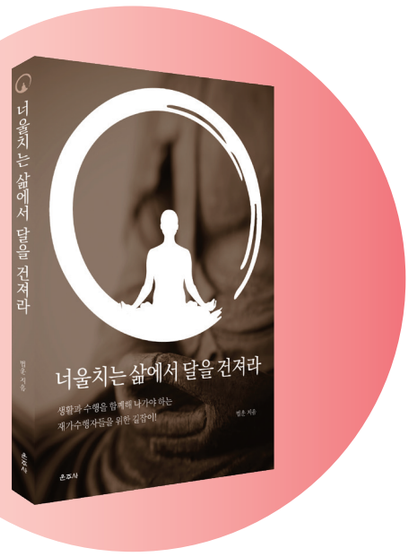
정토에 관한 최초의 논서!
용수보살, 정토를 설하다



– 『이행품易行品』 강의 –
정토사상의 핵심을 다 망라하고 있는 용수보살의 『이행품』에 대해,
그 구성과 내용, 의미, 사상 등을 상세히 설하였다.

혜정법사 법문/정전스님 번역/492쪽/값 23,000원

재가 및 출가 수행의 생생한 체험기!
너울치는 삶에서 달을 건져라



재가 수행자에서 늦깎이 수행자로! 수행 여정에서 만난
각종 장애들과 깨달음, 선지식들과의 인연과 가르침이
진솔하게 그려져 있다.

법운 지음/268쪽/값 1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